**오해의 끝(The Timid Generation)**

#1. 지하철역 밖

BGM 시작

주인공이 지하철 역 밖에서 서성대며 전화를 하고 있다(미디엄 샷)

전화 연결음이 울린다

주인공이 답답한 듯 머리를 쓸어 올리며 전화를 한다(풀샷)

전화가 연결이 된다

다시 미디엄 샷

(주인공: 어 자기야 뭐해?)

주인공이 벤치에 앉아 있다가 신문지를 덮고 벤치에 누워 있다(점프컷)

(여자친구: 자기가 잡아준 호텔에서 누워 있지~ 여기 완전 좋다~ 빨리 와)

옆에서 거지가 건드리자 다시 일어난다.

(주인공: 어.. 근데.. 오빠 좀 늦을 것 같거든?)

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쭈그려 앉아 있다

(여자친구: 응..? 왜? 얼마나?)

(주인공: 어.. 한숨 자고 있을래?)

(여자친구: 뭐..?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야.. 무슨 일 있어?)

그러다 이상한 얼굴이 그려진 티를 입은 사람을 보고는 쫒아간다.

(주인공: 아니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여자친구: 뭐..? 오늘 프로포즈 해주기로 한 거 아냐?)

주인공이 따라가서 그 사람의 옷깃을 잡고 멈춰세운다. 어깨가 드러난다.

(주인공: 어..어 그렇긴 한데..)

그 사람이 화가나 뒤를 바라본다.

(여자친구: 아니 오빠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야..)

BGM이 서서히 작아지다 끊긴다.

그 사람이 주인공의 뺨을 때린다. (뺨소리 대신 캔 따는 소리 선행)

#2. 지하철 플랫폼

주인공이 음료수(수박소다)를 따서 들이키고 벤치에 놓는다.

주인공이 핸드폰을 하고 있다.

핸드폰을 하다 음료수를 집으려 한다. 음료수가 없다.

옆에 앉은 벤치의 남자가 스테인리스 빨대로 수박소다 음료수를 먹다가 다 먹고는 쓰레기통에 던진다. 이게 뭔가 하는 표정으로 남자를 쳐다보는 주인공. 남자가 쓰레기통에 캔이 들어가지 않아 계속해서 주워서 던진다. 그 모습을 계속 보다 주인공이 벤치에 핸드폰을 놓아두고 일어나 가서 남자의 어깨를 건드린다. 남자가 반응하지 않는다. 조금 더 세게 어깨를 건드린다.

주인공: 저..저기요..

남자가 반응하지 않는다. 조금 더 세게 어깨를 건드린다.

주인공: 저기요.. 저기요..

남자가 뒤돌아본다.

남자: 네?

주인공: 아.. 다름이 아니라 이 음료수를 먹고 벤치에 놨는데.. 없어져 가지고요..

남자: 아.. 이건 제가 집에서 가져온 건데.

남자의 서류 가방에 수박 소다가 가득차 있는 걸 주인공이 본다.

남자: (대충 둘러보고) 그쪽 건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예

주인공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음료수를 본다.

주인공: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자: (살짝 웃으며) 아니에요. 살다보면 실수 할 수 있죠. 괜찮아요.

주인공: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괜한 의심을 했네요.. (꾸벅한다)

조아리는 고개를 따라 카메라 쭉 내려가며 장면 전환

#3. 지하철역 밖

BGM 시작

(여자친구: 근데?)

(주인공: 분명히 음료수 떨어뜨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역 밖 음료수 자판기에서 동전을 꺼내다가 동전을 떨어뜨린다.

(여자친구: 아니.. 근데 그게 오늘 늦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자판기 밑으로 동전이 들어간다 주변을 살펴보다 동전을 꺼내려 허리를 굽힌다

(주인공: 현지야.. 오빠 지금 진지해.. 말하고 있잖아..)

뒤에서 떨어진 동전을 줍던 거지가 빤히 주인공을 바라본다

주인공이 자신의 다리 사이로 거지의 눈과 마주친다

(여자친구: 어어.. 그래..)

#4. 지하철 플랫폼

주인공이 떨어진 캔을 주워 자신의 옆에 놓는다. 주인공이 음료가 묻은 손가락을 한 번 쪽 빨고 핸드폰을 꺼내려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핸드폰이 없는 것을 눈치챈다. 다급히 핸드폰을 찾는다. 핸드폰을 찾으며 옆에 놨던 캔을 쳐 떨어뜨린다. 남자의 전화 목소리가 작게 들려온다.

(남자: 어어 호텔은 도착했지? 나? 바로 앞이지.)

주인공이 자신의 케이스와 너무나도 같은 핸드폰을 들고 있는 남자를 보고는 어이없다는 듯 다가간다.

주인공: 저기요. 아저씨.

남자가 반응이 없이 스테인리스 빨대로 음료를 빨며 계속 전화를 한다.

남자: 반지? 당연히 있지. 어 지금 엘리베이터 탔어

주인공: (다시 어깨를 흔들며) 저기요. 저기요.

남자의 반응이 계속 없다.

남자: 어어 좋지. 나 지금 601호 앞이야.

주인공이 더 격렬히 남자의 어깨를 흔든다

주인공: (살짝 격앙된 듯) 아저씨! (세게 어깨를 흔든다)

푹 소리.

남자가 드디어 뒤돌아본다. 남자의 콧구멍에 빨대가 꽃혀 있다. 스테인리스 빨대에서 코피가 흘러나온다. 주인공이 화들짝 놀란다.

남자: (빨대를 빼며) 네? 무슨 일이세요?

주인공: 괘..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제가 휴지가 있나..

남자: 무슨 일이세요? 저 빨리 통화해야 해서..

주인공: 아.. 진짜 죄송한데..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너무 똑같아서..

남자: 아 이거. 여자친구가 투투데이 선물로 준건데.. (대충 훑어보고) 그 핸드폰 뒷주머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빨리 통화를 해야 해서..

주인공이 뒷주머니를 확인하고 작은 소리로(전화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죄송하다고 연신 이야기한다.

남자가 전화를 하며 담배를 꺼낸다. 벽에 붙어있는 금연 표시 몽타주. 코피가 난다. 손가락으로 코를 막고 담배연기를 내뱉는다. 주인공이 남자를 수상하게 쳐다본다.

#5. 기차역 밖

효과음 사라지고

주인공이 담배연기를 뱉으며

주인공: 오해긴 한데. 뭔가 이상했어..

(여자친구: 알겠는데.. 왜 오늘.. 늦게 오는거야..? 어?)

쭈그려 있다가 바닥에서 링 비슷한 물체를 발견한다. 허겁지겁 주워 살펴본다.

(주인공: 어.. 그게.. 그 저번에 내가.. 오늘 프로포즈하려고.. 반지를.. 준비했거든..? 그거 할머니가 결혼할 사람 생기면 주라고 했던 건데.. 아..아무리 봐도 또 그 자식이 가져간 것 같은 거야. 그래 가지고..)

멀리서 기차가 오는 소리

(여자친구: 뭐..? 아니 오빠 대체 뭐..)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와 겹친다.

#6. 기차 플랫폼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

남자의 새끼 손가락에 누가 봐도 작은 반지가 하나 껴져 있다. 당황한 주인공.

고민하는 주인공. 다시 보니 남자가 졸고 있다.

주인공이 몰래 반지를 빼오려 한다. 반지를 다 뺀 주인공. 긴장되는 효과음. 반지를 가져가려 하는데 카메라가 점점 올라가더니 남자의 티에 있는 얼굴모양을 비추고, 주인공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남자의 얼굴로 Cut to.

주인공: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이거 제 반지 아니에요..?

남자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들으라는 듯 얄밉게 소리친다

남자: 여.. 여기 도.. 도둑이야! 도둑! 반지 도둑

당황한 주인공. 그때 기차가 도착한다. 기차소리로 긴장되는 효과음 컷.

남자가 주인공이 손에 쥔 반지를 뺏어 기차에 탄다

주인공이 뒷모습을 빤히 바라본다.

#7. 기차역 밖

(여자친구: 오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준비를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든가..)

남자가 기차 안에 앉아서 창밖으로 주인공에게 반지 상자를 보여주는 장면 살짝 슬로우로 Insert(mos).

얼타는 표정의 주인공 insert(mos)

주인공이 주저앉아 머릴 쥐어 뜯는다.

주인공: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옆에 남자가 가지고 갔..

(여자친구: 아니면 갑자기 결혼하려니까 아쉬웠어?)

주인공: 혀..현지야.. 그게 아니라.. 오..오빠 지금 진지해

(여자친구: 오늘 안에 안오면 나 프로포즈고 뭐고 안 받아줄거야 알겠어??)

주인공: 현지야 현지야!

전화가 끊어진다. 주저 앉은(쭈그려 앉은) 주인공.

주인공: 씨발.. 어쩌냐 이제..

주저 앉은 주인공 뒤로 거지가 몰래 주인공의 주머니에서 1000원을 빼가려 한다. 주인공이 거지와 눈이 마주친다. 눈을 마주치다 거지가 훔친 1000원을 쥐고는 빠른 발걸음으로 도망간다.

주인공이 거지의 뒷모습을 빤히 쳐다본다. 그러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잠시 가만히 있는다. 이내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서 다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그리고 역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간다.

통화 연결음이 이어진다.

#8. 기차 플랫폼

주인공이 두리번거린다.

한 여자가 벤치에서 졸고 있다.

연결음이 끊어지고 “전화를 받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가 나온 후 삐소리가 들린다.

주인공이 벤치에 앉아 천천히 옆으로 가 반지로 손을 뻗는다.

삐소리가 꺼지고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된다.

(주인공: 어.. 현지야.. 오늘 안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말아줘..)

END.